

HARMONY IN THE CHURCH

⁽¹⁾Therefore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if there is any consolation of love, if there is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if any affection and compassion, ⁽²⁾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of the same mind, maintaining the same love, united in spirit, intent on one purpose. ⁽³⁾Do nothing from selfishness or empty conceit, but with humility of mind regard one another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⁴⁾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⁵⁾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Philippians 2:1~5)

When believers are of one accord wonderful things happen. They pray together (Acts 1:14). The Holy Spirit fills them and they talk about the gospel (Acts 2:4). They study God's Word and have fellowship. Miracles take place (Acts 2:43). They experience others coming to salvation and Christ's church growing (Acts 2:47). Are these kinds of things happening in this church? The apostle Paul challenged the Philippian church to be of one accord, one mind, and one purpose. He told them, "Therefore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if there is any consolation of love, if there is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if any affection and compassio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of the same mind, maintaining the same love, united in spirit, intent on one purpose" (vv. 1&2). Our church needs harmony, not different opinions. We need to stand firm in one spirit,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What can you do to make sure this happen?

You must first put away all self-interests. Paul told the Philippian church, "Do nothing from selfishness or empty conceit"(v. 3). You need to lay aside personal vanity and pride, so that Jesus can do His work. To be united this church needs to stop all the arguing and fighting. We need to get rid of the conflicts and contentions. We need to end the strife, so that new life can grow. The only reason for arguments is because one is weak in denying themselves and strong in their own opinions. Galatians 5:13 says, "For you were called to freedom, brethren; only do not turn your freedom into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Love does not tie people up, rather it frees them. Church meetings and gatherings must be centered on Jesus and nothing else! This church cannot have fools for leaders, "For even 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or give thanks, but they became futile in their speculations, and their foolish heart was darkened. Professing to be wise, they became fools"(Rom. 1:21&22). If you believe in Jesus and the cross, then you will deny yourself and be in one accord, and all arguments will cease, "For since there is jealousy and strife among you, are you not fleshly, and are you not walking like mere men?"(1 Cor. 3:3) Listen, if you keep up this shameful behavior you will not see heaven, "Now the deed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 enmities, strife, jealousy, outbursts of anger, disputes, dissensions, factions, envying, ...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just as I have forewarned you,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Gal. 5:19~21). Get rid of it all now.

If you want harmony in this church, you have to be humble. Paul told the Philippian church, "but with humility of mind regard one another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vv. 3&4). This is definitely a different dimension of self-esteem. Paul calls on believers to give their highest esteem for others. Esteem for others grows out of love. Love enables us to forget the faults of others. If you build on a fault, expect an earthquake! Love makes it possible for you to look for the best in others. Paul said, "I affirm, brethren, by the boasting in you which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daily"(1 Cor. 15:31). That is what humble is all about, not issuing your voice. Romans 12:10 says,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give preference to one another in honor." This is what our church needs. We have too many people proud of their church position, always striving for higher authority. It is sad. 1 John 3:14 says,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He who does not love abides in death." If you are not loving others and looking at them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f, what are you doing here? If you really care about people you will have great joy in your heart. Love "does not act unbecomingly; it does not seek its own, is not provoked, does not take into account a wrong suffered"(1 Cor. 13:5). Love is a humble and non-ending act.

Finally, for harmony to take root your disposition, your temper, ought always to be that of Christ's. Paul told the Philippian church,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v. 5). Jesus Christ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This is Paul's most important point. You cannot continue to argue, fight, and hold on to your selfish pride. Please start honoring other people. Start loving others more than yourself. Do not take for your benefit, but give for the benefit of others. If your mind is like Christ, you will have victory over earthly desires. 1 John 5:4&5 say,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Who is the on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If you believe it, then instead of hating other people have community. Do not be selfish. Start giving and stop hurting this church.

My dear friend, we learn from Jesus Christ, from the cross. Jesus put down all His glory and became a Servant of Man. He obeyed unto death. Please learn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I hope you will put away your self-interests and just be humble. Let your attitude reflect Jesus. Then, you can pr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fellowship, talk about the gospel, witness miracles, and experience the joy of others coming to know Jesus. Your heart will be filled to the brim with love, overflowing to others, as you run the race of life. If you and I are going to build a beautiful church, we need harmony. Let us harmonize! Amen. ▣

다음 주일 설교

교회 안에서의 화합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㉑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㉒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㉓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㉔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서 2:1~5)



김성완 목사

신자들이 하나로 화합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행 1:14) 성령이 임하고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행 2:4)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눕니다. (행 2:42)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 2:43)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나아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행 2:47)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라고 도전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2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러 의견들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유익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3절) 개인적인 허영심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논쟁과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갈등과 언쟁을 없애야 합니다. 분쟁을 끝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13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은 사람들을 얹어대고 오히려 자유하게 합니다. 교회의 모임과 집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두머리가 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롬 1:21,22)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한 마음으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논쟁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열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전 3:3) 들으십시오. 만약 이 부끄러운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 원수를 맺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립함과 이단과 투기와 ...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권고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화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낮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3,4절) 이것은 분명히 자존심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최고로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서 사랑을 이룹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단점을 들춰내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낮아짐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10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항상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며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3:14는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니와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거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고전 13:5) 사랑은 변함없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으로 교회가 화합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점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다투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자존심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취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내어주시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적인 욕망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4,5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먼저 주는 것을 시작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삶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제 곧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더욱 자신의 뜻과 유익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시령에 가득 넘치는 보혈의 은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화합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갑시다! 아멘. ■

주요 1부 예배 메시지 (2007. 2. 7.)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29)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요 1:1)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영접하지도 않았다.(요 1:10,11)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다.(요 1:12) 이 진리를 믿고 있는가? 현재 온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진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요 1:1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다독 그리스도의 은총이 절실하다. 광야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사 40:3)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34,36)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순수함 하나님의 어린 양은 순수하시다. 베드로는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하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우크 베드로는 진실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를 찾아주셨다.(찬 84장)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좇지 않았으며 오직 가장 순수하신 어린 양을 전하였다.(벧전 1:19) 가장 순결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벧전 2:22) 순수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인내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내하셨다. 진짜 죄인들의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 도 최 없고 순수하신 예수님은 참으셨다.(히 12:3) 살이 떨어지니가는 채찍질과 다칠 말 그 열구리가 풀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극한의 고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도수 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없으셨다.(사 53:5-7) 죄의 대속을 위해서 인내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이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기적의 역사였다.(요 6:53) 예수님의 제자인 살과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요 6:55) "뉘는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찬 541장) "구주 예수 주의 향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찬 340장)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직 하나의 목표,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충현장학회

충현장학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찬탄한 천국일꾼들을 선별하여 뛰어난 십자가의 정병으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로 13:6) 지난 2006년에는 400여 명의 장학생에게 약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 전반기 장학선 선발은 이미 마쳤으며 후반기에도 선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현장학생을 선별하는 데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화적이 되고 있는 이 때에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회생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고후 6:4) 그러기에 충현장학생을 선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정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인 장학선 선발 과정은 매우 철저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기준을 떠나서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참 신앙을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충현장학생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교인으로서 본 교회 교회학교에 적을 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신학대학원생으로서 공예배와 교회학교 출석 및 헌금 성



김경남(장로, 충현장학회 부회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요 1:29; 히 13:12)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얻는다.(요 3:16)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만 사망뿐이다.(로 6:2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계 5:6-9)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로 5:1)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

성욕하시고 죄 없이 사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욕하셨으며 죄 없이 사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성욕하셨다. 당시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므로 가난해지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성욕하시고 죄 없이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매우 치욕스러웠다.(마 27:28-30)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뿐이었다.(마 27:45,46)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신 후 3일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계 1: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증보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천국으로 승천하신 뒤에 죄인을 위한 유일한 증보자가 되셨다. "그리스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시 95:1; 사 53:5)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은총의 예수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감사해야 한다.(속 12:10) 죄인들의 유일한 증보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믿음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주가 되신다. 순결한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내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성욕하셨고 죄 없이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 후 승천하셔서 지금도 죄인들의 유일한 증보자가 되시며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믿음의 주가 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사 45:22)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로 12:32)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뿐이다.(요 6:37) 진실로 자신이 죄인 중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 매 보혈의 은총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할 것이다.(요일 1:9)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행복의 조건을 믿지 말라.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권력만 믿는 사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찬 137장) 이언.

활을 하고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복음으로 세워질 주님의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항목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마 16:18,24) 그런데 이같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충현장학회의 일꾼들도 죄성을 가진 죄인인지라 부족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기로 기도하면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일꾼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무릎꿇고 있습니다.(골 1:23)

현재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충현장학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라"(행 1:8)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단기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충현장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혈의 은총을 진실로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시 110:3)들이 기록한 뜻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딤후 2:15)

나를 깨뜨리는 회개를 통하여!

여러 번의 선교 경험에 마음 속에 교만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이전에 거 보았던 나라로 사역하기 위해서 처음의 열정은 느슨함으로 변해 있었다. 더구나 언어적 장벽을 쉽게 통과하고 나니 이번 선교 사역은 저절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토록 "자기를 부인하라"고 들었건만...

선교지 도착 첫날 숙소의 초라함이 예전의 것과 비교되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머리는 자기부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은 작은 불만이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그것을 감싸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교만과 안일함으로 시작한 선교는 곧바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현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라 여러 시간, 주님께서 우리 팀의 안전을 지키실 것을 믿었지만 두려움도 마음 속에 가득했다. 경찰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전도지를 증거품으로 압수하여 돌려가며 읽기를 반복하는 동안 팀원들은 자동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기도밖에 없었다.

선교사역을 위하여 온전한 준비와 기도를 못했고 예상보다 어려운 환경을 불렀었던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팀원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준비와 경험을 의지하여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였다. 이처럼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팀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주셨고, 경찰서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현지의 지도층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비록 그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후에 산지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을 만나 합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선교사역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활발히 세워지는 그때를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김민정(고동부 1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2월 5일(월)~2월 13일(화)	직립 2팀	최준호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2월 15일(목)~2월 23일(금)	청년부 1팀	박광식

예수님과 함께했던 선교

저희 팀은 영성심사 그리고 언어식사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탈락할 때마다 전 짜증나고 탈락한 이유를 누구 탓으로만 생각하고, 심사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팀 훈련을 계속하면서 저의 마음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게 꼭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선교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때 주님은 저희 팀을 선교지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사역을 나가기 전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1:1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접한다고 "어떤"을 말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말로 표현 못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희 팀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1 전도를 하느라 모두들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다 마친 후 차 안에서 쉬고 있을 때 꼬마 셋이 저희들 차 앞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풍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희는 화가 났지만,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의 사역도 순탄하지 않았습다. 거의 사역을 마칠 무렵 한 여자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오토바이를 탄 캐나다인이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난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대충 알겠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보기 안 좋다.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여기서 살면서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건 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정말 온몸이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전도를 해야 하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선교였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확신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주님께 감사했고 또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셨고 언제나 저희 안에 계시셨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서 댁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우리가 전도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은혜(중동부 3팀)



2007년 전반기 장학성 명단

대학원생 (19명)

강은미	김경성	김광미	김성탁	김지희	김진희	김현우	문성호
송진경	양현구	윤지원	이병진	이성훈	이유미	이재욱	정명근
정혜리	최윤경	황윤하					

대학생 (133명)

강 건	강민희	강윤정	강재구	고홍섭	곽동섭	곽현우	권도형
권마리	권성재	권지현	김다예	김도홍	김동식	김병희	김민수
김신아	김정은	김소담	김소연	김예진	김영훈	김예진	김예진
김요한	김정민	김윤경	김윤경	김재현	김재현	김지윤	김지윤
김지혜	김진욱	김현덕	김홍미	나영실	노지은	동유창	박 준
박미연	박보람	박상준	박상진	박정현	박정현	박정현	박정현
배성은	백민지	백지수	백지연	손석호	손하영	송성배	신성철
신왕식	신재현	안 윤	염새봄	예상록	오민정	오민정	오민정
왕현정	우가원	우경은	유미경	유미나	유송희	유지현	윤지현
이다정	이동욱	이미숙	이민정	이보람	이봉호	이성희	이송미
이송미	이슬기	이은주	이은혜	이정연	이정희	이주영	이주희
이지은	이지윤	이태현	이한솔	이현주	이혜원	이화영	이훈희
임민섭	전선영	전일열	전지향	전혜정	정다희	정성미	정성철
정승환	정지혜	정혜진	조상미	조용민	조한규	조현국	지은미

차별성

한동원	한영아	한하람	현기수	최유리	최재진	최현희	하성원
홍수경	홍순훈	황순란	황운주	황지현			홍성은

고등학교생 (81명)

강부희	강성현	김다령	김다혜	김대희	김민정	김사예	김성진
김성혜	김연희	김영은	김용은	김유용	김지수	김지윤	김지은
김지환	김하은	김현식	김현철	김호철	마송이	문상호	문영광
문정준	민준하	박서정	박정현	박요섭	변재승	변해연	송태환
안성준	안소희	박성영	안영모	양준식	양한비	양은혜	오다현
유한중	윤수정	이나현	이다영	이성진	이은혜	이주원	이지혜
이진향	이초환	이현민	이혜린	임대진	임병준	임성령	임지수
장다은	장성훈	장윤호	장지혜	전사예	전숙현	전혜진	정수민
정혜하	정찬영	정혜민	조수민	조수현	조현수	최민영	최은빈
최정우	최진영	최한림	추수환	한사라	한상현	한정훈	한태희
홍진호							

이상 233명

총현장장학성 선발자 명성문권 (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007년 2월 16일(금) 금요찬양집회 후

장소 : 베다니홀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기대하며

우리 가족은 2년 전 천령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가족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로부터 자라기 매우 예배드릴 제단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현재 두 아이들은 각각 유년부, 초등부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어려운 찬송가 가사를 모두 외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보다 더 기뻐하실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수에 매여 옛 사람으로 살았던 저 자신이 말씀을 들은 후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한 영적인 체험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으며 예수님만이 내 길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일을 제외하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날을 말하라면 저는 분명하게 "금요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금요찬양집회 때에 드리는 전교인의 은혜로운 찬양, 신실한 찬을 통하여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은혜와 감사의 찬송이 되실들의 가슴을 적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년 전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23일 첫 번째 청지기훈련!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아니 우리 천령의 모든 권속들을 보여주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온실의 화초같이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저에게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경진(전사, 청년2부)

아기의 걸음마처럼 한 걸음씩

교회에 다닌 지 벌써 이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여 가까이하지 못했습니다. 매주일 주변의 권유에 못이겨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에다 핏뚱하게 힘을 주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뒤에 '아, 오늘 할 일을 했구나!'라고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어려서든 죄인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부족한 죄인을 찬양대로 쓰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들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연신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닥아도 닥아도 흘러나오네요. 내가 어린이이도 아닌데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도 참석하면서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따르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저의 모습이 아기의 걸음마처럼 느리고 힘겨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걸음으로 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명희(집사, 2교구)



우리 구역은 작은 천국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해 말 구역장을 처음 맡기기에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어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 때 주님은 갈렙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85세 고령에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시온암관 믿음을 지키며, 짧은 신앙으로 산지를 개척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심' 넘이나 더 젊은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두려움이 있었는가? 라는 믿음이 생기기 "이 산지를 내게도 주소서"(수 14:12)라는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주님은 부족한 제게 사랑이 넘치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적인 형편으로 보면 대부분 구역원들의 작은 장막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는 어느 곳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작은 천국"과 같은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잊으며, 섬기며, 화합하는 자제들이 모여 있는 곳이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모든 구역식구들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고령 청장인원 여섯 명, 수신 참석 포함 열 명 가장 되는 우리 구역원들은 네 마음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구역이 되기를 힘씁니다. 구역교재의 말씀을 나누며 주일 설교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소수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며, 꼭져 있는 기도인 찬양이 특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자책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히 잦을 길은 없습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난 풍파가 닥쳐도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성령이신 교회를 깨달아야 다른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므로, 교회화 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게으르며 형편없는 죄인을 말미다까지 떨쳐드리여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에게 자비로 삼아주시며 인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죽도록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한순간도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눈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정은(목수2구역장, 8교구)

"엄마, 요즘 어때요?" 이제 갓 유치부로 올라간 딸아이가 하는 말이다. 올해부터 유아부 교사를 하는 엄마를 보면서 동생들은

잘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웠다고 자랑해 보아도 그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는 내 딸이다"라는 말씀이었다. 난 그저 유모가 되어 때 되면 젖을 주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할 뿐 온전히 키우시는 것은 주님이셨다. 아이를 주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 가족에 주신 선물임을,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게 하셨다. 사실 엄마로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가장 힘든 것은 아이를 내려놓는 일이었다. 나 아니면 아이에게 잘못이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가! 내가!" 했던 것을 딱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아이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다만 "내가" 문제였던 것이었다. 아이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면 모든 것에는 주님의 때가 있었다. 육적으로 슬슬 자랄 때고, 기저귀를 떼면서 아이는 한마로부터 독립해가고 있었다. 한시간도 엄마와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혼자 예배도 드린다. 영적으로도 엄마의 주님이 아닌 그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길 언제나 기도한다. 그것이 전부이기에도...

"내가! 내가!" 했던 것을 딱 내려놓으니

이렇게 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나니 주위의 모든 어린 영혼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졌다. 이런 소망을 품고 유아부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엄마 무릎만을 찾던 아이들이 이젠 슬슬 내 무릎에도 찾아와서 안기고 뽀뽀해 준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내가 품고 기도할 영적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하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땐, 아이와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 아이의 유모된 부모님을 또한 귀히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다. 말씀 또한 여러 차례 미리 듣고 또 집에서 혼자 묵상하며 마음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적용을 해 본다.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미리 전해 보기도 한다. '아이들의 눈은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해서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난 오직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들을 귀한 어린 영혼의 밭에 뿌린다. 자라나게 하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좋은 열매 맺길 소망할 따름이다. 언제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늘 생령 찬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천국인 곳이 되길 소망한다.

박혜경(교사, 유아부)

새로운 출발 (설교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적 역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출발과 흥미진진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지도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지도 않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몸의 표피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고 있는 중에 적들이 공격하기라도 하면, 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축복하

설날 가정예배

- ◆ 찬 송 410장 다 같 이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 말씀봉독 여호수아 5:1-9 인 도 자
- ◆ 말씀선보 새로운 출발 인 도 자
- ◆ 통성기도 다 같 이
- ◆ 찬 송 382장 다 같 이
- ◆ 주기독문 다 같 이

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이나 관습을 따를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지를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에,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십사 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10절)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처음으로 먹었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12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새롭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실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07년,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향해 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길은 천국으로 열린 영원의 길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행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어둠을 거둔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아멘.

(김성민 위임목사)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 기도 (The Lord's Prayer)

크리스마스 찬송 이후 최근 금요찬양집회에서는 '주 기도' 찬양을 함께 드리고 있다. 주 기도(마 6:9~13; 눅 11:2~4)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요약이며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들어 있다. 단순 명료하면서도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귀한 '주 기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일이다. '주 기도'의 전후에는 제자들과 같이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반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물결로 생각하면 된다.

전후에 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신비스러움을 느끼며 확신을 가지고 작게 불러야 한다. 각 음들을 한 번씩 가볍게 누르듯이 부르되 느리지 않게 한다. “이 · 례 · 거”는 페르마타(ㄷ)에 따라 콧자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부른다. 이어지는 “주님나라 임하시고 뜻이”부터는 약간 빨라지듯 부른다. 21 마디의 간주 부분(9/8박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연결을 그린 후 “일용할 양식 주시교”를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듯 노래한다. 이어지는 “우리”(28마디)는 크지 않게 하되 정확히 불러야 한다.

32마디의 제3박부터 6박자(2마디) 간주 부분은 그 앞 부분의 가사인 “다 용서하옵시교”의 반복 부분이므로 나의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회상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4마디의 “또”부터는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음도 높아져가고 “영원히”까지 템포도 조금씩 빠르게 부른다. 마지막 “아멘” 부분은 아주 크게 시작해서 끝에는 거의 사라지듯이(Morendo) 음미하며 끝낸다. 마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통한 보혈의 은총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듯이 말이다.

(전원임원회)

♡ 새 가 득 속 완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98	반편연	19	외신부	이영우(2)	216	유승훈	10	청년1부	유승철(15)
199	노정호	14	청년2부	윤남순(14)	217	김영훈	8	청년2부	
200	이영일	19	고등부	강진태(13)	218	김지호	19	중등부	성유경(9)
201	박지민	19	사방부	이상근(18)	219	이창현	19	중등2부	윤병식(7)
202	윤지영	19	고등부	주재국(4)	220	조혜남	19	대학부	변창대(8)
203	김관현	19	고등부	손은희(1)	221	유은주	19	청년1부	최석수(12)
204	이종원	19	고등부	전혜경(4)	222	김형식	15	청년2부	김성일(15)
205	황정수	19	고등부	안형근(15)	223	장정영	19	청년1부	홍은혜(1)
206	서지훈	19	고등부	박숙희(13)	224	박미선	19	청년1부	김근애(1)
207	이진훈	1	청년2부	오덕수(8)	225	김진민	19	청년1부	김근애(1)
208	손길순	1	소망부	오덕수(8)	226	장복순	14	소망부	김경애(14)
209	성나원	13	청년1부	황민지(13)	227	신법진	1	청년2부	이부설(1)
210	전민화	19	외신부	유재훈(17)	228	김희정	18	청년1부	유재훈(18)
211	전민호	19	외신부	최영욱(17)	229	이희걸	6	청년2부	이희영(8)
212	김기환	2	청년1부	유일욱(2)	230	송영은	13	청년1부	최정남(13)
213	유주형	19	대학부	송순호(12)	231	이희열	19	청년1부	한재현(12)
214	허태규	1	청년2부		232	장정영	19	청년1부	최석재(17)
215	안연희	1	청년2부		233	김윤아	19	청년1부	도윤희(19)

* 종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